

현대정유, 불법유통 휘발유 단속철저

품질관리 위해 식별제 넣은 경유 공급 ... 전용 측정기로만 구별가능

현대Oil-Bank가 8월부터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식별제를 넣은 경유를 전국의 자사 폴사인 주유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.

현대Oil-Bank는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.

식별제를 넣은 경유는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식별제 전용 측정기를 통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.

식별제 전용 측정기를 갖춘 3개 전담팀을 구성한 현대Oil-Bank는 전국의 자사 폴사인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방문해 타사 제품을 섞어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4/08/04>